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3 / 2010.1.22

□ EU, '20년까지 CO_2 30% 감축목표 견지

○ EU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30% 조건부 감축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1월 16일 발표함.

- EU의 환경장관들은 EU의 결정으로 지지부진해진 국제 기후변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함. 동 발표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환영하였지만,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함.

- 폴 마네트(Magnette) 벨기에 기후장관은 EU의 30% 감축안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에서 유럽 기업들에게 선발자의 이익을 제공하며, 인도, 중국 및 미국의 경쟁 기업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영국의 기후캠페인그룹 Sandbag은 유럽 환경기구(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통계를 근거로, EU의 '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미 1990년 수준보다 10.7% 낮기 때문에 30% 감축목표가 쉽게 달성될 것이라고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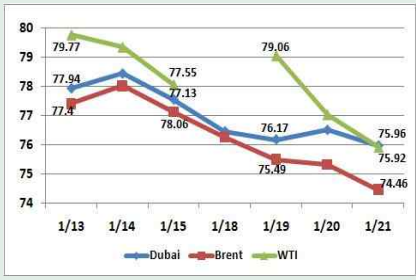
(AFP, 2010.1.16)

NEWS
- EU, '20년까지 CO_2 30% 감축목표 견지
- 일본 상사, 미국·호주 지역 非전통 가스 개발 참여
- 일본, 외항선 배출 CO_2 감축위한 환경세 제도 UN 제안
- 일본, 高유가 시 25엔 감세 적용 방침
- 일본,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구입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중국, 일본과 분쟁해역 가스전 주권 주장
- 중국, '09년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
- 캐나다, 청정에너지프로젝트에 $1.46억 투자 발표
- 미국 에너지부, 바이오연료 및 인프라개발에 약 $8,000만 투자 발표
- 미국 에너지부, 차세대 조명프로젝트에 $3,700만 투자 계획
- '09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러시아 추월
- 미국, 에너지효율 개선 가정에 세금공제 혜택
- 브라질, 세계 첫 에탄올화력 발전소 가동
- 브라질,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에 원유 수출 확대
- 브라질 Petrobras, 포르투갈 및 터키로 운영사업 확대
- 베네수엘라, 까라보보 광구입찰 재개
- 콜롬비아, 미국수출입은행과 $10억 융자 계약 체결
- 쿠웨이트-프랑스,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 이란-러시아, 공동 석유·가스 프로젝트 시 양국의 화폐사용
- 엑손모빌&쉘, 이라크 웨스트쿠르나-1 유전개발계약 체결
- UAE-이집트, CDM 사업으로 연료전환 프로젝트 계약 체결
- EU-이라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양해각서 체결
-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국경탄소관세 부과 반대
- 프랑스, 태양광발전 FIT 인하
- 독일, '10년 바이오에탄올 산업 수요 증가
- 스페인, 원자력 수명 40년 이상 연장 계획
- 스페인-UAE 합작기업, 스페인 7개 은행으로부터 5.4억 유로 자금지원
- 에티오피아, 420MW 수력발전소 완공
- 일본 후지경제연구소, '20년 세계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장 성장 전망

ANALYSIS
- 미 석유수요, '09년 말 회복 시작
- 이란, 제5차('10~'15년) 5개년 개발계획 제시

REPORT
- '10년 세계 석유수요 회복, 아시아 비OECD 역할 중요

Oil Prices (Spot, $/bbl)



ASIA, AMERICA & MIDDLE EAST

□ 일본 상사, 미국·호주 지역 非전통 가스 개발 참여

○ 일본 상사는 미국 및 호주에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는 非전통 가스 개발에 착수 중임. 이에 스미토모상사는 일본 기업 최초로 미국 非전통 가스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도요타통상은 호주에서 석탄메탄가스(CBM)의 LNG화(CBM-LNG) 프로젝트에 투자함.

- 스미토모상사는 '09년 12월 미국 Carrizo Oil and Gas(CRZ) 기업이 생산을 개시한 텍사스州 바넷 셰일(Barnett Shale) 가스전의 지분 12.5%를 획득한 바 있음. 동 가스전은 미국 셰일 가스의 최대 매장지역으로 최대 생산량은 연간 240억㎥이며, 향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동사는 추정하고 있음.

- 도요타통상은 '09년 12월 영국 BG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호주 석탄메탄가스(CBM)의 LNG화(CBM-LNG) 프로젝트에 약 80억 엔을 투자해 지분 15%를 획득한 바 있음. 또한 동사는 호주 현지기업인 애로우 에너지(Arrow Energy)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연간 150만 톤의 LNG를 일본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섭 중임.

(電氣新聞, 2010.1.14)

□ 일본, 외항선 배출 CO_2 감축위한 환경세 제도 UN 제안

○ 일본 정부는 1월 15일 탱커 및 컨테이너선 등의 외항선에서 배출되는 CO_2 감축을 위해 연료비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UN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안함.

- 세계 5만 척 이상의 외항선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하며, 징수금은 국제기금의 형태로 관리함. 기금은 태양에너지 및 풍력을 활용하여 CO_2 배출량을 감축하는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이나 개도국 지구온난화 대책 등에 충당하며, CO_2 감축을 위해 공헌한 선주 등에 환급함.

- 일본 정부는 '14년 동 제도의 시행을 목표로 하며, 연료유 1톤당 $30

가량 요금을 부과할 경우 1년에 $84억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07년 조사에 따르면, 국제 물류 90%를 담당하는 외항선의 CO_2 배출량은 8.7억 톤임.

- 일본이 제안한 안건은 금년 10월에 채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14년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년까지 외항선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현재보다 15%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

(Asahi.com, 2010.1.15)

□ 일본, 高유가 시 25엔 감세 적용 방침

○ 일본 정부조세조사회는 1월 18일 향후 휘발유 가격 상승 시 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함.

- 일본 총무성이 매월 발표하는 휘발유 소매가격이 3개월 연속 ℓ당 160엔을 상회하는 경우 25엔 수준을 감세하며, 이후 3개월 연속 130엔을 하회하게 되면 다시 부과함.

- 동 조사회는 이를 조세특별대책법으로 규정하며, 금년 2월 세제 개정관련 법안으로서 동 대책법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기존세율(ℓ당 28.7엔 규모)에 잠정세율(ℓ당 25.1엔 규모)이 부과되고 있음. 정부는 잠정세율 제도는 폐지하지만, 환경세를 도입하여 잠정세율과 유사한 수준의 세율을 유지할 방침임.

- 지금까지 자민당 정권이 부과해 오던 휘발유의 잠정세율은 하토야마 정권에 의해 폐지될 계획이며, 대신 환경성은 여기에 환경세를 부과해 전체 세율을 ℓ당 50.84엔 수준으로 제안함.

(時事通信, 2010.1.18), (Asahi.com, 2010.1.18)

□ 일본, 미국산 친환경자동차도 구입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1월 19일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입보조금 지급제 적용 대상에 미국산 차량도 포함한다고 발표함.

- 동 제도는 일정한 연비 기준을 충족할 경우 5만~25만 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08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09년 4월부터 '10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예정되었지만, '09년 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면 금년 9월까지 연장될 전망임.

- '86년 미국의 요구로 도입된 수입자동차 특별취급 제도(Preferential Handling Procedure, PHP)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미국 차량은 일본의 연비 측정 기준과 달라 동 제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미국 내 반발을 고려해 요건을 완화할 방침임.

○ 한편 미국 정부가 '09년 7~8월에 시행한 친환경차 구입보조금 지급 대상 약 68만대 가운데 절반이 일본 차량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월 중 미국 차를 동 제도의 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미국 정부에 제출함.

(日本 経済産業省, 2010.1.19), (Asahi.com, 2010.1.19)

□ 중국, 일본과 분쟁해역 가스전 주권 주장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분쟁지역에 위치한 동중국해 시라카바(白樺·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주권이 중국 측에 있다는 입장을 나타냄.

- 지난 1월 17일 오카다 일본 외교성 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도쿄 회담에서 중국이 동 가스전의 단독개발 행위는 양국 간 공동개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양제츠 외교부장은 일본이 중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협력개발에 투자 및 참여할 수 있다는 사항에는 합의하지만, 협력개발은 공동개발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국은 동중국해 시라카바 가스전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언급함.

- 또한 동 가스전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은 양국관계 및 지역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양국은 동 가스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회담을 가지는 것에 동의했음.

○ 일본 정부는 '04년 중국의 동 가스전 개발착수에 항의하여 작업을 중단

시킨 바 있음. '08년에는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개발대책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음.

(新華網, 2010.1.19)

□ 중국, '09년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

○ 중국의 '09년 1~11월 석탄 순수입량은 8,910만 톤으로 그 동안 석탄 수출국이던 중국이 사상 최초로 석탄 순수입국으로 전환됨.

-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09년 12월 석탄 수출량은 207만 톤, '09년 석탄 총 수출량은 2,240만 톤이며, '09년 1~11월까지의(12월 석탄 순수입량 미발표) 석탄 순수입량은 8,910만 톤에 달함.

○ 중국의 '09년 석탄 생산량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30억 톤에 달하지만, 수출량은 2,240만 톤, 수출액은 약 $24억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 중국 정부는 '09년 석탄 해외의존도는 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며 석탄 순수입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힘.

(SearchChina, 2010.1.14)

□ 캐나다, 청정에너지프로젝트에 $1.46억 투자 발표

○ 캐나다 정부는 19개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최대 $1.46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 동 투자금은 캐나다의 경제회복정책(Economic Action Plan, EAP)의 일환인 $10억 규모의 청정에너지펀드에서 충당될 예정이며, 현재 캐나다 정부는 지원자들과 각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투자지원규모를 최저 $250만에서 최대 $2,000만의 범위에서 논의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퀘벡州의 바이오매스 기반 지역난방제도, 캘거리州·앨버타州·온타리오州·브리티시컬럼비아州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스마트그리드기술 시험, 주거 태양열난방을 위한 저장기술 및 집열기 종류 비교 등을 포함함.

- 또한 브리티시컬럼비아州에 위치한 밴쿠버아일랜드 인근 100kW급 파

력설비 시험,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州의 9MW급 복합 풍력에너지 저장시스템, 브리티시컬럼비아州의 1MW급 혐기성소화시설(anaerobic digestion facility) 프로젝트도 포함됨.

(Energy Efficiency News, 2010.1.14)

□ 미국 에너지부, 바이오연료 및 인프라개발에 약 $8,000만 투자 발표

○ 미국 에너지부는 13일 바이오연료 연구 및 연료보급 인프라 개발에 약 $8,000만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함. 동 자금은 경기부양자금에서 조달될 예정으로 2개 바이오연료 컨소시엄에 투자될 계획임.

- 첫 번째 컨소시엄은 도널드댄포스 식물과학센터가 주도하는 National Alliance for Advanced Biofuels and Bioproducts(NAABB)이며 신재생 휘발유, 경유, 항공연료와 같은 해조류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4,400만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임.
- 두 번째 컨소시엄은 국립재생연구소와 퍼시픽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가 바이오매스 기반 탄화수소연료 개발을 연구하는 National Advanced Biofuels Consortium(NABC)으로 최대 $3,380만이 투자될 예정임.
- 한편, 민간 및 비연방정부가 $1,900만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프로젝트 투자금은 $9,7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에너지부는 9개州에 위치한 기존 연료보급 스테이션의 에탄올 혼합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하여 8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60만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는 비연방정부의 $390만을 포함해 총 $550만의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DOE, 2010.1.13)

□ 미국 에너지부, 차세대 조명 프로젝트에 $3,700만 투자 계획

○ 미국 에너지부는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SSL) 핵심기술 연구, 제품 개발, 국내제조 등 세 부문에 대해 총 17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3,700만 이상의 자금을 부문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고체조명(Solid-state lighting): 백열전구 대신 LED와 OLED를 사용하며, 백열전구보다 에너지효율이 10배 이상 높음.

- 핵심기술 부문(3개 프로젝트)에는 $400만 규모의 자금이 투자되어 고체조명의 폭넓은 보급을 위한 저비용·고효율 성능개선 연구가 추진될 예정임.
- 제품개발 부문(6개 프로젝트)에는 $1,030만 규모의 자금이 배정되어 상용화를 위한 고체조명제품 개선 및 개발 지원연구가 추진될 계획임.
- 국내 제조부문(8개 프로젝트)에는 $2,350만이 투자되어 제조장비·과정·모니터링 기술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

○ 현재 미국 전체 전력의 약 24%를 조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년까지 고체조명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전기사용을 33% 가량 줄일 계획임.

(DOE, 2010.1.15)

□ '09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러시아 추월

○ 미국의 '09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6,240억㎥로 전년대비 12.4% 감소한 러시아(5,823억㎥)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함.

- 미국 에너지부는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09년 1월~10월 천연가스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5,190억㎥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천연가스 소비량의 경우 '08년 6,570억㎥로 세계 최대를 보임.
- 러시아의 가즈프롬은 천연가스 생산량 급감의 원인이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에 맞춘 생산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기회복 기미가 예상되는 '10년에는 생산량이 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캐나다와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1,750억㎥와 1,160억㎥를 기록하며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와 4위를 기록함.

(ViewsWire, 2010.1.18)

□ 미국,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가정에 세금공제 혜택

○ 미국 정부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한 각 가정에 2009 경기부양법안 하에서 최대 $1,500까지 30%의 세금공제를 추진할 계획임.

- 최대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비용은 약 $5,000로 추정되며, 이전의 최대 세금공제액인 $500와 비교할 경우 동 제도의 혜택수준은 크게 높아졌음.
- '09년 또는 '10년에 효율개선을 해야 이듬해 공제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공제대상 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태양열온수기, 지열히트펌프, 소형풍력터빈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의 30%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설치장소 준비 및 설치시 드는 비용도 공제대상임.

○ 미국 국세청(IRS)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신규 법안의 기준이 '07년 적용되던 세금기준보다 높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함.

- IRS는 모든 제품이 에너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스타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의 제품인증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AP, 2010.1.19)

□ 브라질, 세계 첫 에탄올화력 발전소 가동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세계 첫 에탄올화력발전소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1월 19일 발표함.

- Petrobras는 미국 GE의 도움으로 브라질 남동부 Juiz de Fora에 위치한 기존 발전소를 에탄올 또는 천연가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가동할 수 있는 87MW 규모의 발전소로 업그레이드함.

○ 브라질은 대체연료 발전 실용화를 위해 에탄올 기술을 개발해왔음. 한편 '03년부터 가변연료(flex-fuel) 차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주력하였음.

(Reuters, 2010.1.19), (Ethanol Producer Magazine, 2010.1.19)

□ 브라질,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에 원유 수출 확대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 일본 오키나와섬을 허브지점으로 삼고 2개월마다 최대 200만 배럴의 저유황 중질원유를 아시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1월 18일 발표함.

- Petrobras는 브라질 최대유전인 론까도르(Roncador)의 원유(API 24~28도)를 초대형유조선(Very Large Crude Carrier, VLCC)에 실어 오키나와 Nansei Sekiyu 원유저장탱크로 운반할 계획이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첫 수송이 이루어질 예정임.
- 브라질은 동 판매계획이 개시되면 對아시아 원유수출량이 3.3만b/d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중국과 한국의 정제능력이 지난 몇 년간 고도화 설비 증설을 통해 확대되면서, 브라질산 원유가 아시아 원유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Petrobras는 오키나와섬의 저장탱크를 사용함으로써 작은 규모의 유조선 운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및 말레이시아까지 원유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Reuters, 2010.1.18)

□ 브라질 Petrobras, 포르투갈 및 터키로 운영사업 확대

○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orbras는 포르투갈 최대 석유기업 Galp Energía의 지분 인수 협상을 진행 중임.

- Petrobras는 Galp의 지분 중 이탈리아 석유기업 Eni가 보유한 33.3% 지분 인수를 목표로 함.
- 동 지분 인수를 통해 Petrobras는 유럽 시장에 경유를 판매할 뿐 아니라 유럽의 정제 및 전력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Galp는 Petrobras와 공동으로 브라질 산토스만에 위치한 뚜삐(Tupi) 심해유전(추정매장량: 80억 배럴)을 비롯하여 54개 광구를 탐사하고 있음. 뚜삐 유전의 지분 구성은 Petrobras 65%, Galp Energía 10%, 영국 BG Group Plc 25%임.

○ Petrobras와 미국 ExxonMobil은 터키 국영석유기업 TPAO와 터키 흑해 심해유전 탄화수소 탐사 협정을 체결하였음.

- Petrobras와 ExxonMobil은 터키 흑해 지역 내 3개 광구(Sinop, Ayancik, Çaramba)에 대한 탐사·생산을 TPAO와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며, TPAO

는 각 광구 운영자로 50%의 지분을 유지하고, Petrobras와 ExxonMobil은 각각 25%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임.

(MercoPress, 2010.1.14)

□ 베네수엘라, 까라보보 광구입찰 재개

○ 베네수엘라 동부 오리노코 유전 내에 위치한 까라보보(Carabobo) 7개 광구 입찰이 1월 말에 진행되며, 2월 초에 낙찰기업이 정해질 예정임. 중국 CNPC, 미국 CVX, 프랑스 Total, 스페인 Repsol, 네덜란드 Royal Dutch Shell, 일본 Misubishi, 인도 ONGC 등이 입찰 참여에 관심을 보여왔음.

- 낙찰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와 공동으로 광구를 개발하며, PDVSA가 각 광구 지분의 60%를 보유함.
- 동 광구입찰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향후 5년 내에 120만b/d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 광구 개발에 $200억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CNN, 2010.1.14)

□ 콜롬비아, 미국수출입은행과 $10억 융자 계약 체결

○ 미국수출입은행은 콜롬비아 국영석유기업 Ecopetrol에 $10억 융자지원을 예비 승인하였음.

- 동 융자금은 콜롬비아의 기존 석유·가스 매장지 및 정제시설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기업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
- Ecopetrol은 '15년까지 100만BOE/d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까르따헤나(Cartagena)·베란까베르메하(Berrancabermeja) 정제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질유 정제를 통해 총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임.
- 상기 예비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콜롬비아는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수출업자는 남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게 될 전망임.

(BNamericas, 2010.1.19)

□ 쿠웨이트-프랑스,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 쿠웨이트 정부는 프랑스와 원자력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함.

- 동 협력협정에 따르면 협력 기간은 총 20년으로 1단계는 쿠웨이트에 담수화 원자력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임.
- 쿠웨이트는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냉방시설 가동이 증가하는 하절기에 단전을 자주 경험하였음.

○ 한편, 모든 GCC 국가들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능력 증대 및 석유·가스 수출 증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설비 구축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와 곧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UAE는 지난 12월 $400억 규모의 원자로 건설계약을 한국전력(KEPCO)이 이끄는 컨소시엄과 체결한 바 있음.

(ArabianBusiness.com, 2010.1.14)

□ 이란-러시아, 공동 석유·가스 프로젝트 진행시 양국의 화폐사용

○ 쉬라지(Shirazi) 이란 석유부 차관은 쿠드리야소프(Kudryashov)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과의 석유·가스 협력 실무회담 이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양국의 화폐를 공히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신용도가 떨어진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 기축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1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과 이란 석유부 장관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합의한 바 있음

- 양측은 15개의 신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카스피해 부근 신규 정제시설 건설, 가스스왑 등에 합의함.

○ 쉬라지 차관은 또한 이란이 향후 5년 내에 가스생산을 2배로 확대(10억 m^3/d)하고, 원유생산도 100만b/d 확대하여 500만b/d가 되게 하며, 신규 정제시설과 석유화학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Zawya.com, 2010.1.14)

□ 엑손모빌&쉘, 이라크 웨스트쿠르나-1 유전개발 계약 체결

○ 엑손모빌(80%)과 로얄더치쉘(20%)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라크 정부의 남부지역 웨스트쿠르나-1 유전 개발 수정안을 수용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함.

- 이로써 엑손모빌은 미국 석유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이라크 유전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음. 웨스트쿠르나-1 유전의 확인 원유매장량은 87억 배럴에 이름.
- 엑손모빌과 쉘 컨소시엄은 동 유전 개발계약을 11월에 체결한 바 있으나 이라크 정부의 계약조건을 수정으로 최종 계약이 지연됨. 한편, 쉘은 수정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절함.
- 11월 계약안에 따르면 엑손모빌과 쉘은 원유생산을 27.9만b/d에서 232.5만b/d로 확대하며, 초과로 생산한 원유에 대해 $1.9/bbl의 생산수수료를 받음.

○ 최근 이라크 정부는 외국석유회사들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임.

- 수정내용으로 이라크 정부의 생산량 변경권리, 외국석유회사의 보험문제, 유전개발 수입 자재 및 수입 장비에 대한 세금부과가 거론되고 있음.

(ViewsWire, 2010.1.19)

□ UAE-이집트, CDM 사업으로 연료전환 프로젝트 계약 체결

○ UAE 마스다르(Masdar)는 CDM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ESIIC(Egyptian Sugar and Integrated Industries Company)와 연료전환 프로젝트 시행 계약을 체결함.

- ESIIC는 동 프로젝트에 $750만을 투자하여 연료유(중유) 소비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함. 연료유 대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연간 5.7만 톤의 CO_2 배출 감소가 예상됨.
- 향후 마스다르는 CO_2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상업화하고 CDM 의무사항에 따라 UN에 생산물을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임.
- 또 ESIIC와 공동으로 탄소크레딧을 매입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동 프

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효과를 기대함.

※ 마스다르: UAE 아부다비 국영 미래에너지기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석유의 존도 감소 및 미래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 이행을 위해 설립되었음.

(ArabianBusiness.com, 2010.1.17)

□ EU-이라크,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피발그스(Piebalgs) EU 에너지 집행위원과 샤리스타니(Shahristani) 이라크 석유부 장관은 이라크의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양해각서를 체결함.

- 나부코 가스파이프라인 연결 이외에도 EU는 이라크가 전력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양해각서에서 제시된 협력분야에는 이라크에너지정책 및 '10~'15년 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이라크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망 평가, 파이프라인 안전성 확보, 이라크-유럽 간 천연가스 자원 및 공급루트 결정, 이라크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이 포함됨.

(Oil & Gas Journal, 2010.1.19)

EUROPE & AFRICA

□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지명자, 국경탄소관세 부과 반대

○ 카를 데 구흐트(Gucht)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지명자는 온실가스 미감축 국가에서 제조된 수입상품에 대하여 국경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1월 12일 유럽의회에서 밝힘.

- 탄소집약적 상품을 제조·수출하는 국가에 탄소관세를 부과해 글로벌 탄소배출 및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 등 일부 EU 회원국에서 제기되었음.
- 구흐트 지명자는 무역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들어 탄소관세 부과안을 거부함. 또한 풍력터빈과 태양전지 등 환경제품에 대한 관세 폐지를 지

지하지만, WTO에서 동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 제조업계는 EU의 향후 10년간 20% 탄소감축공약('90년 대비)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EU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함. 철강업계단체인 Eurofer는 같은 날 EU 신임 집행위원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Reuters, 2010.1.12)

□ 프랑스, 태양광발전 FIT 인하

○ 프랑스 정부는 국영전력회사 EDF가 지역 공급자로부터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경우 적용하는 발전차액지원금(feed-in tariffs, FIT)을 1월 13일 인하함. 소비자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동 조치는 지난 2개월 간 발생한 태양광발전부문의 투기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됨.

- 장 루이 보를루(Borloo) 에너지장관은 '09년 말 FIT 신청 폭증으로 전력공급에 대략 28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 FIT 인하 소식을 접한 지역 재생에너지 공급자들은 EDF와의 20년 치 에너지 공급계약 신청서를 하루 동안 3,000건 제출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지난 2개월 간 접수된 공급계약 신청을 모두 취소하고 신규 신청 규칙을 발표함. 신규 규칙은 태양전지 설치유형에 따라 두 가지 요금을 설정함.

- 지붕 설치유형에는 1kw/h 당 0.42유로의 FIT가 지급됨. 건물 내 설치유형은 학교, 보건소 및 가정의 경우 1kw/h당 0.58유로, 사무실 등 기타 빌딩의 경우 1kw/h당 0.50유로의 FIT가 지급됨.

(Views Wire, 2010.1.14)

□ 독일, '10년 바이오에탄올 산업 수요 증가

○ 독일 및 유럽 각국 정부가 휘발유 내 바이오에탄올 최대허용치를 인상할 계획임에 따라 '10년 독일의 바이오디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독일 바이오에탄올업계협회(BDBE)가 1월 15일 발표함.

- 독일 정부는 '10년 여름부터 휘발유 내 바이오에탄올 수준을 현행 5%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이며, '10년 겨울에는 동 연료가 대량으로 출시될 예정임.

○ '09년 유럽 시장에서 독일산 바이오에탄올과 브라질산 제품과의 경쟁이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10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09년 브라질산 바이오에탄올의 유럽 내 판매가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이는 국제 설탕가격이 인상되자 브라질 정부가 당료작물을 바이오에탄올로 가공하는 대신 설탕으로 제조하여 수출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임.

○ 이번 겨울 EU의 당료작물(sugar crops) 풍작으로 값싼 당료작물이 바이오에탄올 원료로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올 겨울 독일 및 유럽 각국의 농가는 EU가 설정한 쿼터를 초과하여 당료작물을 재배하였음. 쿼터를 초과한 생산량은 식품이 아닌 공업용으로 판매되어야하므로 바이오에탄올 원료공급이 늘어날 전망임.

(Reuters, 2010.1.15)

□ 스페인, 원자력 수명 40년 이상 연장 계획

○ 스페인 정부는 470MW 규모의 가로나(Garona) 원자력 발전소 운전 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09년 12월 말에 발표한 바 있음.

- 법안 초안에는 스페인 안전위원회(CSN)의 안전성 규정에 따라 40년 이상 수명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임.

- 40년 수명 연장이 허가되면 470MW 규모의 가로나(Garona)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은 '13년까지 연장되며, 기타 7개 발전소는 '21~28년까지 연장될 전망임.

- 또한 동 정부는 원자력발전관련 손해 민사책임과 핵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개혁할 예정임.

○ 그러나 스페인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차츰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교체할 예정임.

- 스페인 전력기업 Red Electrica에 따르면 '09년 총 에너지발전원에서 원자력

은 19%('08년 20%)를 차지하였으며, 풍력은 13%('08년 11%)를 차지하였음.

(EU energy, 2010.1.15)

□ 스페인-UAE 합작기업, 스페인 7개 은행으로부터 5.4억 유로 자금지원

○ 스페인 Sener와 UAE Masdar의 합작기업인 Torresol Energy(Sener 60%, Masdar 40% 지분 소유)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두 개의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Valle1·2, 총50MW 규모) 건설을 위해 스페인 7개 은행으로부터 20년 기한 융자 5.4억 유로를 지원받았음.

- 상기 발전소는 '09년 3월에 착공하여 '11년에 완공될 예정임. 총 투자규모는 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융자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Torresol Energy가 부담함.
- 동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340GWh 발전으로 8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9만 톤의 CO_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Torresol은 남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미국 남서부에도 태양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EFE, 2010.1.18)

□ 에티오피아, 420MW 수력발전소 완공

○ 에티오피아 전력회사(Ethiop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EEPCo)는 신설 수력발전소 Gillgel Gibe II의 가동을 다음 주 공식 개시할 것이라고 1월 13일 밝힘.

- 3.73억 유로를 들여 건설된 Gibe II(420MW)는 에티오피아 사상 최대의 발전소로, 이탈리아로부터 2.2억 유로를 차관을 건설비용으로 제공받았으며, 나머지 비용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유럽투자은행이 담당하였음.
- Gibe II의 건설은 '05년 이탈리아 기업 Salini Construttori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100명의 에티오피아인들과 30개국의 전문가들이 5년간의 건설 과정에 참여하였음.
- 자매 발전소인 Gibe I과의 고도 차이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Gibe II는 에티오피아의 전력생산능력을 30%까지 확대할 전망임.

○ 에티오피아 정부는 2개월 전 Tekeze 발전소의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Gilgel Gibe II에 이어 세 번째 Beles 발전소의 가동이 '10년 1분기에 개시될 예정임.

(Views Wire, 2010.1.13)

□ 일본 후지경제연구소, '20년 세계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장 성장 전망

○ 일본의 후지경제(Fuji Keizai) 연구소는 세계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 시장이 '20년까지 각각 10.5배와 3.9배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같은 급성장은 미국과 중국시장을 선두로 발전차액(FIT) 제도도입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활성화에서 기인될 전망임.
- 28개국의 태양발전능력은 '09년 18,156MW에서 '20년 190,488MW로 10.5배 확대될 전망이며, 풍력발전능력은 '09년 152,922MW에서 '20년 596,863MW로 3.9배 늘어날 전망임.

※ 28개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남아공, 아시아지역 9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유럽 1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체코)

○ 독일은 세계 최대 태양발전국가로 발전능력이 '09년 7,440MW에서 '20년 39,490MW로 5.3배 확대될 전망이며, 풍력발전능력은 '09년 25,900MW에서 '20년 54,000MW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태양발전능력은 '09년 1,570MW에서 '20년 33,000MW로 21배 급증하고, 풍력발전능력은 '09년 31,869MW에서 '20년 130,000MW로 4.1배 확대될 전망임.
- 중국의 태양발전능력은 '09년 225MW에서 '20년 19,200MW로 85.3배나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풍력발전능력은 '09년 20,000MW에서 '20년 107,000MW으로 5.4배 늘어날 전망임.
- 인도의 경우 태양발전능력은 '09년 172MW에서 '20년 6,200MW로 36배, 풍력발전능력은 '09년 11,145MW에서 '20년 30,345MW로 2.7배 늘어날 전망임.

(Point Carbon, 2010.1.20)

1. 미 석유수요, '09년 말 회복 시작

□ 개요

○ 미국 석유협회에 따르면 '09년 미국의 연간 석유수요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연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음. 휘발유가 수요 회복을 주도하였으며 중간유분의 수요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 석유 및 콘덴세이트 생산은 미미한 허리케인 피해와 신규개발 활성화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음.

□ 세부 내용

○ 미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의 '09년 연말 및 12월 통계에 따르면, 미 석유수요는 '09년 전 기간에 걸쳐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연말에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최근 단기 에너지전망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발표됨.

- API에 따르면 12월 석유수요가 4분기 평균수요보다 높았으며, 4분기 수요는 '09년 연간 수요보다 높았음.
- 휘발유, 등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회복세는 매우 강하였으나, 중간유분, 특히 차량용 연료인 초저황경유의 회복이 부진하였음.

○ API가 수요측정 기준으로 삼는 미국 석유제품의 '09년 연간 공급물동량은 '08년 1,950만 b/d에서 4% 하락한 1,870만 b/d임. 12월 공급물동량은 전년 동기의 1,910만 b/d에서 0.6% 상승한 1,930 b/d임.

- 펠미(Felmy) API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가 다소 회복되었으며, 이는 소매와 고용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 휘발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API 통계에 따르면 '09년 12월 석유제품의 생산과 재고수준은 감소하였으며, 이는 미 제조업부문이 5개월 연속 성장한 결과임.

- '09년 12월 말 미국의 중간유분 재고량은 1.62억 bbl으로, 이는 동년 11월 30일의 수정치인 1.68억 bbl 보다는 3.3% 낮으나 '08년 말의 1.46억 bbl 수준 보다는 11.4% 증가된 수치임.
- '09년 12월 생산량은 전년대비 0.5% 하락한 380만 b/d이며, '09년 연간 생산량은 전년(390 b/d) 대비 7.9% 감소한 360만 b/d임.

○ 초저황중간유분(ULSD)은 수년째 높은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PI의 통계에 따르면 '09년 ULSD 재고는 11월 30일의 1.16억 bbl에서 1% 상승한 1.17 bbl로 마감하였으며, 이는 '08년 말의 1.04 bbl보다 21.6% 상승한 수치임.

- 정유업계는 ULSD의 생산량을 감축해 재고상승에 대응하였음. '09년 12월 ULSD 평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한 310만 b/d이며, '09년 전 기간 ULSD 평균 생산량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320만 b/d임.

○ 석유제품의 국내수요는 '09년 말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휘발유가 회복세를 주도함.

- '09년 12월 휘발유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910만 b/d이며, '09년 연간 수요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900만 b/d임.
- '09년 12월 항공유의 공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150만 b/d를 기록함. 그러나 '09년 연간 수요는 전년 대비 7.9% 하락한 140만 b/d를 기록함.

○ '09년 미국의 석유 및 콘덴세이트 평균 생산량은 '08년 500만 b/d에서 7% 증가한 530만 b/d이며, '09년 12월 생산량은 전년의 510만 b/d 에서 8.6% 상승한 550만 b/d임.

(Oil & Gas Journal, 2010.1.15)

2. 이란, 제5차('10~'15년) 5개년 개발계획 제시

□ 개요

○ 이란은 제5차('10~'15년)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1,550억 규모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을 통해 원유생산능력은 현재 400만b/d에서 '15년까지 510만 b/d로 확대하고, 휘발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제시설의 신규 건설 및 개선 계획을 제시함.

○ 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산업부문에 재투입하여 재정·금융 및 무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매년 원유생산에 따른 소득 중 20%를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NDF)에 적립할 계획임.

□ 세부 내용

○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1월 10일 의회에서 사회정의 증진, 사회 각층의 평등기회제공, 빈곤 퇴치, 경제적 경쟁력 증진, 실업률 감소, 에너지산업 지원 투자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에는 향후 5년간 $1,550억 규모의 석유·가스 상류부문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유생산능력은 현재 400만b/d에서 '15년까지 510만b/d으로 확대하고 사우스파스 가스전 개발로 천연가스 생산을 11억 m^3/d로 증대할 계획임.

○ 신규 정제시설 건설 및 가동을 통한 휘발유 자급 및 수출계획도 발표함.

- 특히 테헤란과 아바단의 정제시설능력이 증가될 계획이며, 아라크, 라반, 반다르 아바스 및 이스파한에 있는 정제시설도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임.

○ NPC(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에 따르면, 이란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3월 21일부터 46개의 신규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시작하여 연간 5,000만 톤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임.

- 그러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제재의 어려움을 감안하다면, 5년 내에 석유·화학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동 계획에는 또한 에너지산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산업부문에 재투입, 재정·금융 및 무역 시스템을 정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자유무역지구를 활성화시키며, 원유수출소득 의존도를 낮추는 목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이란은 매년 원유생산에 따른 소득 중 20%를 국가개발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NDF)에 적립할 계획임. NDF는 기존의 석유안정화기금(Oil Stabilization Fund, OSF)을 대신하게 될 것임.
- 그동안 정부는 OSF 보유 기금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 발표하지 않았기에, 자금운영활동에 있어 과다한 인출 및 불투명한 사용내역이 일부 의회 의원들에 의해 종종 비난을 받아왔음.

○ 거시경제 목표로 경제성장률 연 8% 달성, 실업률은 현재 11%에서 '15년까지 7%로 감소시키는 내용이 발표됨.

(Middle East Economic Survey, 2010.1.18)

'10년 세계 석유 수요 회복, 아시아 비OECD 국가의 역할 중요

□ 개요

○ '09년 세계 경기침체로 석유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석유수요 증가 정도가 '10년의 석유시장 판도를 결정지을 전망임.

-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등 대규모 석유수요 국가가 포함된 이들 지역의 석유수요 증가 혹은 회복 여부는 세계 석유 수급상황 및 유가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특히 아시아 지역 비OECD 회원국들의 석유수요 증가정도는 국제석유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며, 이들 국가 중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는 '10년 세계석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세부 내용

○ 아시아 비OECD 회원국 각각의 석유수요량은 크지 않으나 전체의 소비량은 석유 수급 및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물량으로 평가됨.

- 비OECD 회원국의 차량 보유대수 증가로 인해 휘발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출산업의 호황으로 경유 및 기타 중간유분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 동 지역의 석유화학산업 호황도 납사수요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지만, 발전소 등 중유 소비가 큰 분야는 점차 천연가스로 대체되는 상황임.

○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는 '10년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 중 약 4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며, 기타 아시아지역 비OECD 회원국의 수요 증가량을 더할 경우 이 지역의 비중은 75%에 달할 전망임.

- '09년 기준 아시아 비OECD국가의 총 석유소비량은 미국의 소비보다 오히려 다 많은 양을 기록함.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09년 석유소비량은 25.7백만b/d로 세계 석유소비량의 30%를 차지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26.5백만b/d까지 증가할 전망임.

'10년 아시아지역 석유 수요 전망

지 역	'10년		'09년	
	수요량 (천 b/d)	전년대비 증가율	수요량 (천 b/d)	전년대비 증가율
중 국	8,740	5.1%	8,316	5.7%
기타 아시아 비OECD	10,102	3.9%	9,720	1.7%
아시아 OECD*	7,622	-0.4%	7,653	-5.1%
아시아 전체	26,464	3.0%	25,689	0.7%

*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자료: OMI, IEA

○ 중국에 이어 인도 역시 세계 석유수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의 '10년 석유수요량은 전년대비 14만5천b/d 증가한 3.3백만b/d에 달할 전망임.

- Bank of America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10년 인도의 GDP 성장률은 7.6%를 기록할 전망임.
- 인도 중산층 심지어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휘발유 수요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부문의 성장세로 납사 및 경유소비도 증가할 전망임.

○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비OECD 국가의 '09년 석유소비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9.72백만b/d였으며, 올해의 경우 증가율이 3.9%로 늘어날 전망임.

- 태국의 '09년 석유소비량은 전년대비 1.6%증가한 94만3천b/d를 기록했으며, 1.3백만b/d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작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09년 약 1백만b/d의 석유 소비량을 기록한 싱가포르는 '10년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대만과 필리핀 역시 경기회복으로 석유소비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임.

○ 세계 석유수요 회복여부는 역시 중국의 석유수요 증가세에 따라 결정될 것임.

- '10년 중국의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42만3천b/d 증가한 8.74백만b/d에

달할 전망으로, 중유 및 경유소비는 부진할 전망이지만 휘발유, 납사, 기타 석유제품 소비의 증가세가 전체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할 것임.

- '09년 경기침체의 극복을 위해 중국은 5천860억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10년에도 이어져 경제성장률은 10%를 초과할 전망임.
- '09년 12월 중국 원유 수입량은 5백만b/d를 기록, 12월 최대 수입량 기록을 갱신하였음.

○ 한편, 중국 경기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견해도 적지 않음. 특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버블의 위협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불건전성이 세계석유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배제할 수 없음.

(Oil Market Intelligence, 2010. 1)